

[천리순례] 함께 해서 고독하지 않은 수행의 길

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13 18:20 수정 2021.10.13 19:06 댓글 0



은사상좌, 사형사제 참여 스님들 눈길

수행자의 길은 고독하다. 풍찬노숙하는 수행은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수행의 길에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도반이 있다는 것만큼 큰 힘은 없을 것이다. 천리순례에는 은사 상좌, 사형 사제가 함께 참여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이끌어 주고 밀어 주는 탁마의 자리가 펼쳐지고 있다.



보림 스님(사진 왼쪽)과 보월 스님은 같은 조에서 함께 수행하며 사형제의 정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사형제 함께 순례 “수행의 의지처, 동질감 커져”

형제를 동기(同氣)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같은 기운을 물려받아서이다. 하지만 수행자로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같이 수행하는 사형제만큼 동기라는 말이 어울리는 단어는 없을 것 같다.

법주사에서 함께 온 보림 스님과 보월 스님은 같은 조에 속해 옆텐트를 쓰며 순례에 임하고 있다. 순례 후 숙영지서 지쳐 있을 때면 짐을 날라주고, 서로 챙기는 사형제간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형인 보림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일생에 한번 될까한 기회”라며 “불교중흥이란 큰 주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림 스님은 “처음 몇일 간은 매우 힘들었다. 분별심도 올라오고,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보니 과연 끝까지 회향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사제가 위로해주고 대중 스님들이 격려해주고 하다보니 십여일을 무사히 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림 스님과 보월 스님은 각자 지인 스님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다. 걷는 순례가 처음인 보림 스님과 달리 보월 스님은 수차례 혼자 순례를 진행한 적이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최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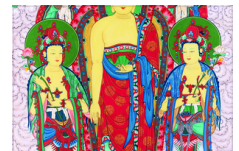
- 10.27법난41주년...군학발 짓밟힌 스님 법석 봉행



- 유네스코 네트워크 뮤직페스티벌 폐막공



-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 회원전 개최



- 박은아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사회 실천가대상



- 과천시약사회,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도시



인기뉴스

- 1 절터 복원명상...‘메타버스’ 빠진 불교
- 2 교학후학양성 매진한 대강백 종광 스님
- 3 조계종 최고 품계 대종사명사 품서식 봉
- 4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 5 흥법사,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

보월 스님은 “20여년 전에 오대적멸보궁을 송광사에서 출발해 봉정암까지 혼자 걸식하며 걸어간 적이 있다. 3년전에도 동해안 해파랑길 760km를 한달 가량 순례했다”며 “삼보사찰과 인연을 맺게 되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보월 스님은 혼자 순례할 때보다 함께 순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다.

보월 스님은 “혼자 다닐 때는 도로위에 혼자 있어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간이었다. 대중들과 함께 하니 의식주 해결도 될 뿐만 아니라 각자 수행과 더불어 재가자를 비롯한 대중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수행에 대한 마음도 더욱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곁에 있던 보림 스님도 대중과 함께하는 순례에 고마움을 표했다. 보림 스님은 “몸이 무거워 질 때면 숨은 불보살들이 나와 돕는다. 젖은 신발을 건어가 말려주기도 하고”라며 “여러 사람이 마음을 나누면서 협력하며 오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무장무애, 참가한 분들이 회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보월 스님은 “길 위에 사형사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인연이 참 깊구나 생각한다. 이러한 인연을 각자의 절로 돌아가면 세상사람들에게 전해줘야 겠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형제간이 마냥 가까운 것만은 아니다. 한 집에서 사는 형제 간에 그렇듯이 사찰에서 함께 살다보면 서운한 것도 생기고,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

보월 스님은 “같이 무엇을 하다보면 다 녹일 수 있다. 묵묵히 한발 한발 가면서 부처님을 참배하면서 삼보를 순례한다는 것에서 부처님 제자라는 동질감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보림 스님은 “의지하며 많은 힘이 됐다. 끝까지 마음 나뉘가며 회향하겠다”며 “사형사제 마음도 두터워 지고 좋은 추억도 쌓는 것 같다”고 미소지었다.



해인 스님(사진 왼쪽)은 은사인 정혜 스님이 일흔의 연세에도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모습에 또 다른 발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제 함께 순례 “어른도 걸으시는데, 이제 시작”

정혜 스님(70)은 “저희 상좌는 뭘 하자고 하면 ‘꼭 해야해요?’ 하면서 절대 말을 안듣는다. 그런데 순례는 가자고 하면 온갖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따라나와요”라며 농담을 건넸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스님은 “집을 비우고 나와야 하니까...농사일도 해놓고 나와야 하고, 신도관리도 해놓고 나와야 하고, 코피터지게 해놓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혜 스님은 순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걷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많이 변하고 화두도 잘들고, 힘들어도 밤에 앉아서 참선도 하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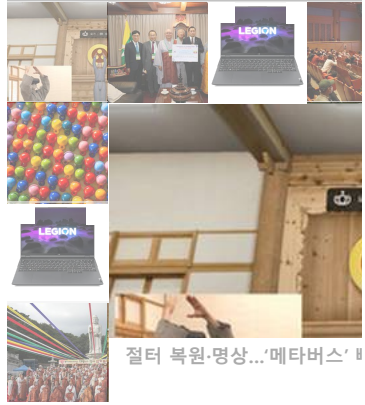
정혜 스님은 지난해 자비순례 당시 전체 21일 중 11일 가량을 참여했다. 순례단이 아니었던 스님은 당시 외부에서 숙식을 하며 순례행렬을 따라다녔다.

[현대불교NEWS] 불교중흥



[영상]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절터 복원·명상...‘메타버스’

스님은 “그땐 상좌가 대학을 다닐 때여서 지금보다 더 힘들었다”며 “차 한대를 도착지점에 대놓고, 한 대로 출발지점에 새 벽에 와서 같이 걷고, 도착지점에서 다시 출발지점에 와서 차를 모두 가지고 외부 숙소에서 자고, 다시 다음날 합류하고 하는 일정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정혜 스님은 고창 마하사를, 해인 스님은 영광 행복숲마하사를 가꾸고 있다.

상좌 해인 스님은 월요일과 화요일 수업을 받고, 화요일 저녁에 고창에 사찰로 가서 사찰일을 정리해놓고, 목요일 다시 수업을 받고 금요일이면 순례에 참여했다.

스님은 “코피 터지게 했죠”라고 웃었다.

상좌인 해인 스님(53)은 “저도 오십이 넘어 갱년기가 오다보니 힘든게 많지만, 어른스님이 관절도 앓 좋은데도 앞서서 걸으시니 ‘어른이 하시는데’라며 따르고 있다”며 은사스님의 말을 받았다.

해인 스님은 “같이 참여한 대현스님도 오십대인데 ‘이번 순례가 마지막 순례이라는 생각에 참여했다’고 한다. 근데 와서 보니 육십 칠십이 넘으신 분들이 정정하게 순례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시작이구나’를 느꼈다고 말하더라”고 이어 말했다.

“어른스님들이 앞장서시는걸 본받으며 따라가고, 젊은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을 도우며 함께 힘을 모으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잘 걷고 있어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결사](#)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치 되새기다

이시각추천뉴스

-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나눔
- 세계 불교영화, 지역서도 선보인다
- 송광사 불교굿즈 ‘빨간 목탁’ 서울서 만난다
- 僧匠 색난 조성 불상·진관사 태극기 ‘보물’ 지정
- “‘승가화합’ 부재 94년 개혁... 종단 세속화 가속”
- 학교수업심리치유...코로나 극복 논의 ‘붓물’
- 연등회 기원 ‘빈녀난타품’ 영상으로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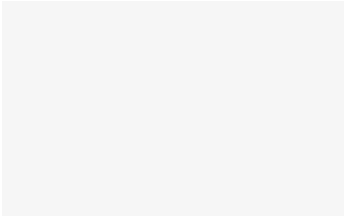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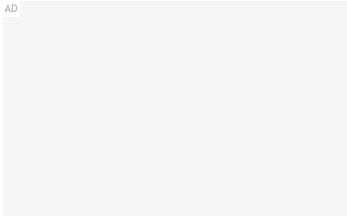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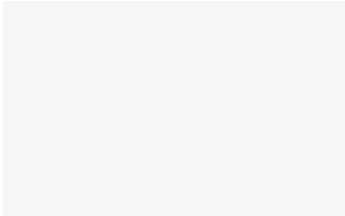


AD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제한, 탈종단 가속화 부작용만”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소유진 다이어트하고 살찌는 똥보균 박멸한 A양 화제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19. 스피 소니언 <지장보살도> ②

<

>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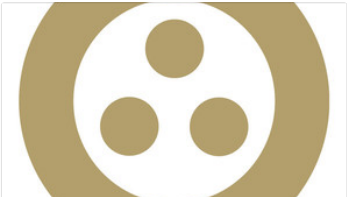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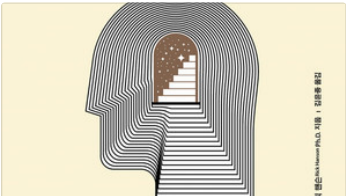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무문 흥법사 앞 도로공사 강제집행에 불상 '산산조각'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있어”

로그인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구독신청

아이디찾기
불편신고

발행 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